법 어

올해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만사여의(萬事如意)하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모두 세계가 놀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경제 대국에 걸맞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이를 엮어내는 우리의 마음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민족의 현안인 남과 북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겸허한 성찰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공존과 상생의 한 마음으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어,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가야 합니다.

사회가 생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더라도 주위와 함께 하려는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실천하며,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금의 모든 갈등과 쟁론을 풀어가야 합니다.

흔히 양을 순하고 연약한 동물이라 하지만 무리를 짓는 공동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처럼 고조되는 경제위기와 열강들의 각축장에서 한민족이라는 믿음으로, 국민 통합과 남북의 화합을 이끌어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들처럼 화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고 버려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비우면 전도된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것을 나누면 자신을 옥죄는 탐욕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이웃이 보이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웃의 웃음에서 나의 행복이 보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정겨운 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 청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너그러운 실천이 본래의 마음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낡은 틀을 일신하고자 진력을 다하시면서, 상호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하신 한국불교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신한 수행문화 확산을 통해 시대와 시민이 감동하는 희망의 한 해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진이 사회 곳곳에 맑은 기운을 넘치게 하고, 지혜의 덕화가 이룬 선근(善根)의 공덕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